

농가의 경제적 복지 수준에 관한 연구

— 남편과 부인의 주관적 평가를 중심으로 —

노자경 · 최은숙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가정학과

The Level of the Farm Households' Economic Well-being

— Focused on the Appraisal of Husbands and Wives —

Roh, Ja Kyoung and Choi, Eun Suk

Dept. of Agricultural Home Economics, College of Agricul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I. 序論

1. 問題의 提起

한 개인이나 가족, 국가를 막론하고 그들의 공통 관심과 목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구현하는 데 있다. 이러한 관심은 어떤 요소가 복지수준에 영향을 주며, 어떤 요소가 그들의 복지를 대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를 요구하게 되었다. 국민 개개인이나 국가의 복지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매우 다양하며, 대부분의 지표들은 경제적 요소들을 중요하게 다루어 GNP나 1인당 소득, 1가구당 소득 등을 통해 경제적 복지수준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획일적인 단일 지표만의 사용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므로, 조사대상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복합 지표조합개발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우리 국민의 객관적인 경제수준은 매우 상승되었으며 농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상승이 그대로 복지감의 상승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농가의 명목상 經濟的 水準의 上昇은 도시와의 경제적 不平等 문제와 負債문제를 수반하고 있으며, 농민의 相對的 貧困과 사회문화적 疏外狀態를 고려할 때 복지감이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¹⁾. 경제적 복지가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만족감 모두의 증진을 통해 이루어 짐을 고려할 때, 농가의 복지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평가²⁾외에도 주관적인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주관적 평가가 내려지는 데 영향을 끼치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규명해 내는 일이 농가의 복지관련연구 및 정책개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 研究의 目的

農家의 主觀的인 經濟的 福祉 水準을 測定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具體的인 研究目的은 다음과 같다.

1) 농가의 남편과 부인이 평가한 全般的인 福祉

1) 農村 經濟 研究院의 조사결과, 농촌거주 이유가 “어쩔수 없어서”라는 항목이 1983년에 54.9%에서 1986년에 70.4%로 증가된 예와 농협의 1990년 설문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한겨레신문 1990년 7월 9일자 발표) 79.9%가 “도시생활보다 못하다”, 48%가 “10년전보다 나아진 게 없다”는 결과는 객관적인 경제 요소들만으로는 농가의 복지 수준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2) 경제적 복지의 객관적인 평가방법, 복지수준 및 관련변수에 관한 내용은 노자경(1991), 농가의 경제적 복지측정 및 관련변수 연구, 소비자학회지 제2권 1호 참고

水準 및 社會人口學的, 經濟的 特性에 따른 主觀的인 福祉水準을 알아본다.

2) 농가의 남편과 부인이 평가한 相對的 滿足感의 水準을 알아보고, 相對的 滿足感에 따른 主觀的 福祉水準을 알아본다.

3) 농가의 남편과 부인이 평가한 具體的 滿足感과 主觀的 福祉水準의 關係를 알아보고, 主觀的 福祉水準 評價에 影響을 주는 主觀的 滿足感 要因들을 糾明한다.

II. 理論的 背景

1. 삶의 質, 福祉, 經濟的 福祉의 概念

일반적으로 개인의 생활목표 및 국가와 지역사회의 궁극적인 목적을 삶의 質 향상 및 福祉具現임을 표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삶의 質과 福祉의 概念은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편안히 잘 지내는 상태, 안락하고 만족한 상태, 건강하고 번영된 상태, 행복한 생활상태 등의 類似 概念들로 표현되어 왔다(Webster Dictionary, 사회과학사전, 사회복지사전 등).

삶의 質과 福祉는 너무나 主觀的인 概念이어서 Ben(1977)은 삶의 質에 대한 개념은 사람 수 만큼이나 많다고 하여, 이 概念이 개개인이 처한 문화나 시간, 성별, 연령, 사회계층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의 概念 定意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의 價値判斷 문제로서, 삶의 質과 福祉의 개념 정의는 물론 그들의 측정을 위해서도 개인과 사회의 가치에 대한 先行研究가 필요시 되었고, 그 결과 좋은 삶의 質을 위해 어떠한 構成要素가 중요한 지에 대한 일련의 조사 연구가 이루어졌다(Cantrill, 1965 : Scheneider 1975 : Juster, 1981 : Abbey, 1985 등).

삶의 質에 대한 概念 定意방법은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데 Livingstone(1977)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다음의 3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첫째, 삶의 質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들, 즉 幸福, 滿足, 富 등에 대한 定意를 내리거나, 둘째, 社會指標를 이

용하여 정의하거나, 셋째, 사회지표와는 상이한 지표로 이루어진 指數(index)에 의한 일련의 사회, 경제, 환경지표를 이용하여 삶의 質에 영향을 주는 變因이나 成分을 特定化함으로써 간접적인 정의를 내리는 방식이다.

James(1972)는 물질적, 비물질적 성취에 대한 만족감이나 행복감이라고 하여 主觀的인 면을 강조한 반면, harland(1972)는 보다 客觀的인 면을 중시하여, 1)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2) 교육제도수행 3) 시민권과 정의 4) 심리적, 사회적 차원에서 적절한 거주 5) 여가시간의 향유 6) 건전한 가족 기능의 충족 7) 변화하는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자원 8) 동등한 기회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Ben(1977)은 삶의 質이 인간의 복지와 거주하는 환경에 대한 客觀的인 狀態 및 主觀的인 느낌의 複合 狀態를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김해동(1976)과 김경동(1982)도 物質的 客觀的인 삶의 質과 精神的 主觀的인 삶의 質 모두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삶의 質과 福祉는 여러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으나, 共通的으로 經濟的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經濟的 측면의 福祉가 충분조건은 아니더라도 필수조건이라는 暗黙的인 合意에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 홍동식(1983)은 農村의 福祉 水準 研究를 수행함에 있어 經濟的 측면, 社會的 측면, 文化的 측면을 통해 고찰하였고, 정지용(1978)은 福祉 農村을 社會福祉가 이룩된 살기좋은 農村으로서 평균소득이 높고 地域社會 開發事業이 잘 추진되며, 필요한 공공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고, 빈부간 격차가 작은 단위지역사회라고 정의하였으며, 김동일(1982)과 최병익(1986), 엄문자(1987)도 복지에 있어 經濟的 측면이 기초가 됨을 강조한 바 있다.

2. 經濟的 福祉의 主觀的 測定法

主觀的 測定法은 조사 대상자에게 직접 질문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滿足度나 經濟的 位置등을 評價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직접적인 측정이라는 유용성이 있으나, 주관적인 평가는 객관적 상태는 물론 조사대상자의 경험이나 가치, 기대수준 등에 따

라 완전히 개인적인 평가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질문의 表現方法에 따라서도 다른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 主觀的 社會指標에는 熱望(Aspiration), 期待(Expectation), 幸福(Happiness), 滿足(Satisfaction)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滿足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전반적인 만족감과 구체적인 만족감 모두의 측정이 필요하다(Schneider, 1975).

질문 유형을 보면 어느 정도 재정상태나, 경제생활에 만족하는지를 묻는 경우(Fletcher and Lorenz, 1985; 한국의 사회지표, 1989; 김동일 외, 1982)와 所得의 適切性을 묻는 경우(김동일 외, 1982; 김민정, 1984; 임정, 1989), 자신의 계층 또는 경제적 지위를 評價하도록 하는 경우(한국의 사회지표, 1989; 김동일 외, 1982; 최재석, 1975) 등으로 대별된다.

객관적인 생활여건과 주관적 또는 심리적인 만족도는 항상 一致하는 것은 아니며, 주관적인 평가는 절대적인 평가외에도 相對的인 比較 評價를 수반하게 된다. 과거와의 비교, 자신의 기대 수준과의 비교, 주변환경과의 비교등이 그것인데, 김동일(1982)과 최재석(1978)등은 과거에 비해 경제적 상태가 좋아졌다 하더라도 만족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유를 자신의 期待 水準이나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相對的 貧困과 剝脫感, 階層間 不平等 지각에 따른 不幸福感의 擴大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개발정책 등에서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복지를 균형있게 고려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최소가 되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므로 개인의 복지문제 반영을 위해서도 直接的인 主觀的 評價가 필요하겠다.

개인의 주관적 평가는 자신의 객관적 조건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여건과도 큰 相關關係를 지니므로, 사회 구조적 측면을 고려한 生態學的 立場의 연구들도 중요시 되고 있다(홍동식, 1983; 최병익 외, 1982; 최병두, 1981; Fletcher and Lorenz, 1985).

최근 일련의 연구는 客觀的 指標와 主觀的 指標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Juster외, 1981; Schneider, 1975; Fletcher외, 1985). 두가지 지표 모두 삶의 질이나 福祉水準 測定을 위한 것임에도 상관 관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서로 다른가 하는 문제는 경제적 복지를 정확하게 파악함에 있어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중요성을 지닌다.

指標의 選擇은 자료의 이용 가능성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데, 주관적 지표의 경우 設問 調査를 통한 방법이 사용되나, 객관적 지표의 경우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를 사용하는 방법외에도 專門的, 客觀的, 巨視的, 社會指標를 사용하는 예도 있다. 그러나 정부에 의한 대단위 사회지표 보고는 전체 삶의 질 측정에 대단히 부정확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Juster, 1981).

Schneider(1975)의 연구결과는 객관적 상태가 지역간 큰 차이가 나는 반면 주관적 상태는 지역간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와,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相關關係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지역내에서의 미시적 연구는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평가 사이의 상관관계를 높여 다른 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파악에 좀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I. 研究方法 및 節次

1. 調査 道具의 作成

본 연구의 조사 도구는 質問紙로서 社會 人口學的 변수와 經濟的 변수 외에, 농가의 주관적인 경제적 복지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시켰다.

1) 主觀的 評價의 尺度

모두 5점 척도로 구성되어 남편과 부인 모두가 선택하도록 하였다.

가) 농가의 全般的인 滿足感(經濟的 位置)

나) 相對的 滿足感

● 經濟的 上昇感(5년전과 비료) ● 期待水準(5년후에 대한 기대)

● 地域社會내에서의 평가(타농가와 비교)

● 全國的인 評價(도시 가구와의 비교)

다) 具體的인 滿足感(자산, 소득, 지출전반과 각 항목)

라) 기타 經濟的 福祉의 主觀的 評價에 影響을 준다고 생각되는 항목(조세 공과금 액수, 농업경영비 지출, 저축, 주택, 내구재, 정부시책, 공공시설, 재정관리 능력, 농사일과 가사일의 만족도, 부채 사용의 만족도)

2. 調查對象 및 資料標集

본 연구는 읍·면 단위에 거주하는 농가의 남편과 부인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狹義의 農家 概念을 적용하여 100명 이상의 경지를 경영하거나, 대동물이나 소동물을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1990년 7월 18일에서 21일까지와 9월 13일에서 20일까지 1,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1990년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³⁾ 용인군 기흥읍과 내사면, 이천군 마장면과 이천읍의 10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읍과 면지에 각각 150부씩(국민학교 세곳에 90부, 중학교 4곳에 125부, 고등학교 3곳에 85부) 총 300부를 배포하여 217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기제가 부실 한 것을 제외하고 자료처리가 가능한 203부(남편 197명, 부인 203명)만을 分析 資料로 사용하였다.

3. 資料의 分析方法

資料의 分析은 PC(personal computer)의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경제적 복지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頻度分布, 백분율, 평균과 중앙값을 사용하였고, 주관적 만족도와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單純相關(Simple Correlation)과 要因分析(Factor Analysis)을 하였고,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각 독립변수들의 純影響 力을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점수 및 객관적 변수들을 이용하여 重回歸 分析(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IV. 研究結果 및 考察

1. 社會人口學的 特性에 따른 經濟的 福祉 水準

본 조사연구 대상 농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경제적 복지수준은 다음 表 1과 같다.

表 1. 人口 社會學的 特性에 따른 經濟的 福祉水準

변수	구분	(%)	S.I. ^a	S.I. ^b
			평균	평균
가족원수	1) 3-4명	12.3	3.0	2.8
	2) 5명	22.2	2.6	2.6
	3) 6명	26.6	2.5	2.5
	4) 7명	25.1	2.8	2.7
	5) 8명 이상	13.8	3.0	3.1
	F 값		2.59*	3.09*
LSD			3-4,1,5	5-3,2
가족유형	1) 2대 직계	64.0	2.7	2.7
	2) 3대 직계 ^a	26.6	2.7	2.7
	3) 3개 직계 ^b	9.4	2.9	3.0
	F 값		1.17	1.37
LSD				
남편연령	1) 40세 미만	10.2	2.8	2.8
	2) 40-44세	26.8	2.8	2.8
	3) 45-49세	29.6	2.6	2.6
	4) 50-54세	17.2	2.7	2.7
	5) 55세 이상	12.8	2.9	2.8
	F 값		0.92	0.57
LSD				
남편교육수준	1) 국졸이하	29.4	2.6	2.5
	2) 중졸이하	35.0	2.7	2.6
	3) 고졸이하	33.5	2.9	2.9
	4) 대졸이하	2.0	3.5	3.8
F 값		2.71*	4.06*	
LSD			4-1,2	3-14-12,3
부인연령	1) 40세 미만	36.5	2.7	2.8
	2) 40-44세	29.6	2.6	2.5
	3) 45-49세	19.7	2.7	2.6
	4) 50-54세	7.4	2.9	2.9
	5) 55세	6.4	3.1	3.1
	F 값		1.06	1.51
LSD				5-2

3) 경기도의 농가수는 총가구의 14.8%인 211,218가구(용인군 총가구수 : 39,998, 이천군 총가구수 : 32,502) 자료 : 경기도

변수	구분	(%)	S.I. ^h	S.I. ^w
			평균	평균
부인 교육 수준	1) 국졸	44.8	2.6	2.5
	2) 중졸	40.4	2.7	2.8
	3) 고졸	14.8	2.9	3.0
	F 값		2.05	5.07**
	LSD			1-2,3
농 업 종 사 자 수	1) 1명	13.9	2.8	2.7
	2) 2명	61.4	2.8	2.7
	3) 3명	15.3	2.8	2.9
	4) 4명 이상	7.4	2.4	2.6
	F 값		1.40	0.80
LSD				
농 의 취 업 자 수	1) 없음	39.1	2.69	2.58
	2) 1명	38.1	2.59	2.64
	3) 2명	15.3	2.84	2.87
	4) 3명 이상	7.4	3.33	3.27
	F 값		3.96**	3.37*
LSD		4-2,1,3	4-1,2	
편 의 시 설 수	1) 1가지	30.2	2.5	2.5
	2) 2가지	30.7	2.7	2.8
	3) 3가지	24.3	2.7	2.8
	4) 4가지 이상	14.8	3.3	3.0
	F 값		5.48**	1.94
LSD		4-1,2,3	4-1	
재 정 관 리 자	1) 남편	24.7	2.6	2.7
	2) 부인	34.8	2.8	2.7
	3) 부부 공동	39.9	2.8	2.7
	F 값		0.64	0.09
LSD				

a : 부부를 기준으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b : 부부를 기준으로 자녀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족
 * : P<0.05, ** : P<0.01, h : 남편, w : 부인

1) 家族員數에 따른 農家의 經濟的 福祉水準

조사대상 농가의 가족원수는 3명에서 13명까지의 분포를 보였으며, 6명인 농가가 26.6%로 가장 많았고 5명에서 7명인 농가가 73.9%로 나타났다.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조사대상에서 除外하였으므로 평균 농가의 가족원수(4.8명)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된다. 가족원수가 적거나 많은 경우에 높은 복지수준을 나타내었고, 8명 이상인

농가의 복지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족원수가 많은 경우는 가족내 所得 獲得者數의 增加에 따른 총소득 규모가 크고,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자산의 축적 또한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p<.05의 수준에서 하위집단 간 복지수준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2) 家族 類型에 따른 經濟的 福祉 水準

가족 유형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2대 직계 가족이 64%를 차지하며 부부를 기준으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3대 직계가족이 26.6%를 차지했으며, 3대 직계가족의 복지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각 집단 간에 의미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3) 男便의 年齡에 따른 經濟的 福祉 水準

남편의 나이는 40대만 58.9%로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부인의 나이는 30대가 37.0%이고 40대가 49.3%를 차지하여 남편과 부인은 4살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55세 이상인 경우의 복지수준이 가장 낮으나, 각 집단 간에 의미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4) 男便의 教育水準에 따른 經濟的 福祉 水準

남편의 교육수준은 대졸(2%)을 제외하고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나, 학력이 높아질수록 복지수준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하위 집단간에도 국졸과 대졸, 국졸과 고졸사이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P<.05)

5) 婦人의 年齡에 따른 經濟的 福祉 水準

부인의 연령은 30대가 37.0%이고 40대가 49.3%를 차지하여 남편과는 4살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데, 남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55세 이상 집단의 복지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5세 이상 집단과 40~44세 집단간에만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고, 전체적으로는 부인의 연령이 가계복지 인지와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는 임정의 연구(1989)와 일치한다.

6) 婦人の 教育水準에 따른 經濟的 福祉 水準

부인의 교육수준은 국졸과 중졸이 고졸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전체적으로 복지수준은 높은 경향을 보여서 $p < .01$ 의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국졸 부인의 복지감과 중, 고졸부인의 복지감 사이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農業 從事者數에 따른 經濟的 福祉 水準

農業 從事者 수는 2명일 경우가 가장 많아(61.4%), 부부가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유형이 일반적임을 보여주나, 1명인 경우가 13.9%나 되는 것은 농외취업과 농업이 병행되고 있는 경우로 파악된다. 3명까지 종사하는 경우가 90.6%로, 전체 가족원의 1/3정도가 농업노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 간 복지수준에 의미있는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8) 農外 就業者數에 따른 經濟的 福祉 水準

農外 就業者가 있는 농가는 61.9%로 1명인 경우가 38.1%를 차지했다. 농외 취업자수에 따라 $p < .05$ 와 $p < .01$ 의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농외 취업자가 없는 농가의 경우보다는 농외 취업자가 있는 농가의 총소득이 높았으며, 농외 취업자 수가 증가할수록 역시 총소득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자산의 영향을 고려했을 때, 농외 취업자가 1명인 농가는 농외 취업자가 없는 농가보다 자산을 적게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앞선 논의에서와 같이, 耕地 規模가 작은 농가에서 農外所得에 依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하지만 농외취업자가 子女의 就業 등으로 인해 2명 이상인 경우는 자산규모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 복지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산규모가 작은 농가에 있어 농외취업에 의한 농외소득이 주관적 복지에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9) 周邊 便宜 施設數에 따른 經濟的 福祉 水準

노인정, 마을회관, 유아원 또는 어린이 놀이터, 간이 체육시설, 소비조합, 마을공동 창고 등 周邊

施設數는 1가지 이하가 30.3%나 됐으며, 2~3가지가 54.8%로 나타났으나, 시설상태가 劣惡함을 알 수 있다.

시설수 증가에 따라 남편의 福祉水準이 增加하여 $p < .01$ 의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으나, 부인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서 시설수가 4가지 이상인 경우와 1가지 이하인 경우에 복지수준이 차이를 보였다. 농가의 주관적 복지수준이 지역 사회내 복지시설에 영향을 받는다는 일련의 社會生態學的 觀點의 研究들과 일치된 결과로 보인다.

10) 財政管理에 따른 經濟的 福祉 水準

財政 管理者는 부부 공도이 제일 많아 39.9%이고, 부인이 34.3%, 남편이 24.7%로 기존의 다른 연구 결과와는 달리 부인의 재정관리 참여가 높게 나온 것임 흥미로운 일이다. 재정관리의 내용별로 구분된 연구가 필요하겠다. 재정관리자에 따른 경제적 복지수준은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2. 經濟的 特性에 따른 農家の 經濟的 福祉 水準

본 조사연구 대상 농가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경제적 복지수준은 다음의 표2와 같다.

表 2. 經濟學的 特性에 따른 經濟的 福祉 水準

변수	구분		S.I ⁿ 평균	S.I ⁿ 평균
		(%)		
경지규모	1) 0.5ha 미만	27.6	2.5	2.5
	2) 0.5-1.0ha	37.4	2.7	2.6
	3) 1.0-1.5ha	18.2	2.9	2.9
	4) 1.5ha 이상	16.7	3.1	3.0
모	F 값		4.96**	3.79*
	LSD		4-12.3-1	4-12.3-1
주소득작목	1) 수도작	79.3	2.7	2.7
	2) 특용작물	9.9	2.5	2.6
	3) 과수	2.5	3.0	2.6
	4) 축산	8.4	2.8	2.9
목	F 값		0.74	0.48
	LSD			

변수	구분	(%)	SI ^h 평균	SI ^w 평균
소 득 발 생 빈 도	1) 1회	15.9	2.8	2.8
	2) 2회	19.8	2.3	2.1
	3) 3-4회	20.3	3.1	2.9
	4) 5-11회	10.8	2.9	3.0
	5) 12회	16.5	2.5	2.5
	6) 13회 이상	15.4	1.7	2.0
	F 값		3.89**	4.31**
	LSD		6.2-1.4,3	2-1.3,4
순 자 산	1) 250만 미만	14.3	2.1	2.0
	2) -499만	26.6	2.5	2.5
	3) -999만	34.5	2.9	2.9
	4) -1999만	18.2	2.9	3.0
	5) 2000만	6.4	3.3	3.2
	F 값		8.61**	10.18**
	LSD		1-2,3,4,5 2-3,4	1-2,3,4,5 2-3,4
총 소 득	1) 360만 미만	7.9	2.6	2.6
	2) -599만원	28.1	2.6	2.4
	3) -839만원	29.6	2.6	2.7
	4) -1199만원	19.2	3.2	3.2
	F 값		3.38*	4.03**
	LSD		5-2,3,1	5-2,1,3,4-2
부 채	1) 없음	30.0	2.8	2.9
	2) 3,000 미만	28.1	2.8	2.7
	3) 3,000-5,999	18.3	2.7	2.7
	4) 6,000-11,599	12.8	2.3	2.4
	5) 12,000 이상	10.8	2.7	2.5
	F 값		1.85	1.58
	LSD		4-2,1	4-1
일 인 당 소 득	1) 60만 미만	7.4	2.4	2.6
	2) -119만원	43.3	2.6	2.6
	3) -179만원	31.0	2.8	2.8
	4) -239만원	8.4	2.8	2.5
	5) 240만 이상	9.9	3.1	3.2
	F 값		1.88	2.68*
	LSD		5-1,2	5-4,2,1
가 계 비	1) 360만 미만	9.4	2.7	2.6
	2) -599만원	39.4	2.7	2.6
	3) -839만원	29.6	2.6	2.6
	4) -1199만원	17.2	2.8	2.9
	5) 1200만-	4.4	3.4	3.3
	F 값		1.67	2.56*
	LSD		5-3,2	5-1,2,3,4-2

* : P<0.05, ** : P<0.01, h : 남편, w : 부인

1) 耕地規模에 따른 經濟的 福祉 水準

耕地規模는 평균 0.91ha이며 0.5ha 미만인 농가가 27.6%, 0.5~1.0ha인 농가가 37.4%로 1.0ha 미만인 소농이 65.0%를 차지하여, 1.0~2.0ha 미만의 중농은 24.7%, 2.0ha 이상의 대농은 10.3%이나 경지규모의 격차가 심해서, 0ha에서 4.3ha까지 분포한다. 조사 지역이 경기도여서 '88년 全國 農家의 平均 耕地 規模(1.18ha)보다 작은 것으로 생각되며, 경지규모의 零細性으로 인해 農外 就業에 의한 농외소득의 비중이 큼을 알 수 있다.

경지규모의 차이는 농업소득의 차이와 자산의 차이를 수반하므로 농가의 경제적 복지수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1.0ha 미만의 소농과 1.0ha 이상의 중농 사이에서 복지 수준의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P<0.1).

2) 主所得 작목에 따른 經濟的 福祉 水準

主所得작목은 79.3%가 수도작이었으나, 대부분 다른 작목과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소득 작목에 따른 경제적 복지수준은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所得發生 頻度에 따른 經濟的 福祉 水準

所得의 發生 頻度는 농가소득의 안정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년1회가 15.9%, 년2회가 20.3%이고, 년 3,4회가 19.8%로 반 이상의 농가가 간헐적인 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1회 이상의 농가가 31.9%인 것은 농외 취업자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소득발생 빈도에 따라 주관적 복지수준은 p<.01의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으나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4) 純資產에 따른 經濟的 福祉 水準

純資產은 '88년 전국 평균 41,623 천원에 비해 평균과 중앙값이 모두 높게 평가되었는데, 시간적, 지리적 토지가격 차이가 그 중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순자산 보유액이 많은 농가와 적은 농가의 차이가 매우 크다. 농가의 경우 순자산은 농업소득의 토대를 마련해 주고, 농가의 경제적 지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농가의 자산이 증가

함에 따라 복지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가에 있어 자산규모가 경제적 복지의 평가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5) 總所得에 따른 經濟的 福祉 水準

總家計所得은 '88 전국 농가 평균 8,130천원 보다 약간 작은 8,029천원으로 월 평균 50만원 미만인 36.0%, 50~100만원 미만인 48.8%, 100만원 이상이 14.8%를 차지했다. '88년 都市 平均 家計 所得이 657천원, 農家 月所得이 677,486원임에 비해 평균 652천원으로 도시 평균 월소득보다 낮게 평가됐다.

총소득 수준에 따라 복지수준은 $p < .05$ 와 $p < .01$ 의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총소득은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복지의 중요 요인으로 사용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남편과 부인 모두의 복지수준 평가에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소득 상위집단과 중하위 집단 간에 복지수준에 있어 의미있는 차이가 보인다.

6) 負債에 따른 經濟的 福祉 水準

負債가 없는 농가는 조사대상의 30.0%를 차지했으며, 3,000천원 미만의 농가가 과반수를 넘는 58.1%를 차지했다. 부채 평균은 4,729천원으로 1988년 전국 농가 평균보다 높게 평가되었으나, 중앙값은 2,000천원으로 12,000천원 이상의 부채가 있는 농가(10.8%)의 영향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부채가 없는 농가의 복지수준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집단과의 의미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농가 부채가 家計 消費性 負債와 農業生産을 위한 負債가 共存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토지나 농기계의 구입을 위한 부채는 농가의 소득과 자산 증가를 기대한 행위로 볼 수 있겠다.

7) 一人當 所得에 따른 經濟的 福祉 水準

1인당 소득은 총가계소득을 가족원수로 나눈 것으로 평균 1인당 월 11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일인당 소득규모에 따른 경제적 복지수준은 전반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일인당 소득은 농가의 총소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으로 복지수준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8) 家計費에 따른 經濟的 福祉 水準

家計費는 화폐지출에 농산물등의 현물소비를 화폐로 환산하여 더한 금액으로, 월평균 500천원인 농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557천원으로서 1988년 도시가구 476천원과 농가 503천원에 비해 높게 평가되었다. 가계비 수준이 높을수록 부인의 복지 수준은 $P < .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며 높아지나, 남편의 경우는 상위집단과 중하위집단간에만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접 가계비를 사용하는 부인들이 남편에 비해 좀 더 민감한 복지수준 차이를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3. 相對的, 具體的 滿足感에 따른 經濟的 福祉水準

우선 본 연구의 남편과 부인이 평가한 전반적인 경제적 지위 분포를 알아보았다. 타 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하위와 중하위를 묶고, 상위와 중상위도 한집단으로 묶어 세 집단으로 조정하였다.

表 3. 階層 意識 比較 (단위: %)

	S.I. ^b	S.I. ^c	경제기획원	김동일
하위집단	35.0	37.5	42.6	25.0
중위집단	53.3	48.8	53.0	60.0
상위집단	11.6	14.8	4.4	15.0

자료: 경제기획원, 사회통계조사, 1985
김동일의, 한국농촌주민의 삶의 질, 1982

表 3에 제시된 바와같이 모든 연구결과에서 과반수 정도의 응답자가 자신의 중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기획원의 1985년도 계층 의식조사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 반면, 김동일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경제기획원의 결과는, 상층에 속한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거의 없는 반면, 상대적으로 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다. 이는 경제기획원의 연구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와 김동일의 연구가 농촌을 대상으로 한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본 연구 결과와 김동일의 결과는 비교해 보면 본 연구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상층이 적고 하층이 많았으며, 남편과 부인을 비교해 본 결과 부인이 남

편보다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모두 약간씩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주관적 계층구조가 상대적으로 안정되게 나타난 것이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복지수준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생각된다. 주관적 복지수준이 상대적 만족감과 구체적 만족감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대적 만족가의 분포 및 一元分散分析과 相關關係를 보았다.

表 4. 男便의 滿足 水準에 따른 農家의 分布 (단위: %)

구 분	S.I.	상대적 만족수준			
		5년전	5년후	타농가	도시가계
하 위 집 단	6.6	6.6	2.5	5.1	29.4
중하위집단	28.4	10.7	6.1	18.3	36.0
중 위 집 단	53.3	34.0	32.0	49.2	31.0
중상위집단	9.6	40.6	40.1	24.4	3.0
상 위 집 단	2.0	8.1	19.3	3.0	0.5

表 5. 婦人의 滿足 水準에 따른 農家의 分布 (단위: %)

구 분	S.I.	상대적 만족수준			
		5년전	5년후	타농가	도시가계
하 위 집 단	8.9	5.9	3.0	4.9	26.1
중하위집단	28.6	10.8	3.4	19.2	37.4
중 위 집 단	47.8	30.0	28.1	43.3	29.6
중상위집단	13.8	39.4	41.9	27.6	6.4
상 위 집 단	1.0	13.8	23.6	4.9	0.5

1) 福祉 水準과 相對的 滿足感 水準

表 4와 表 5에 제시된 바와같이 5년 전에 비해 경제적 상태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고 대답한 남편과 부인은 48.7%와 53.2%이고, 비슷하다고 대답한 경우는 각각 34.0%, 30.0%이며, 나빠졌다고 대답한 경우는 17.3%와 16.7%를 차지했다. 부인이 남편보다는 좀 더 경제적 上昇感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일(1982)의 5, 6년전과 비교한 가구 경제사정에 대한 평가결과도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상승 53%, 유지 27%, 하락 20%).

다음 비교 변수는 5년 후의 경제적 상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期待感이다. 남편과 부인 모두 나아질 것이라는 대답이 많아서 59.4%와 65.5%를 차지하고 있다. 김동일(1982)의 조사결과는 53%가 상승할 것이라는 평가를 보였고, 1986년도 경제기획원의 사회통계조사는 시부에서 76.6%, 군부에서 72.4%가 장래 가구 소득이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도시가계보다는 농가에서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덜 한 것으로 파악된다. 남편보다는 부인이 좀 더 높은 기대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농가와와 경제적 상태를 비교해 본 결과, 남편의 경우는 중하위 집단과 중위집단의 많은 수가 타농가 보다 약간 나은 상태에 있다고 대답하여, 전반적인 분포가 상위집단으로 이동됨을 볼 수 있다. 부인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거나 좀 더 상위집단으로 분포되어 남편보다 높은 滿足度를 보인다. 김동일(1982)의 결과는 부락내 다른 집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다(46%)와 약간 못하다(24%)의 비율이 많고, 본 연구와 비교할 때 좀 더 부정적인 평가를 나타냈다.

도시 가계와의 경제적 지위 비교결과는 사뭇 상이한 양상을 보여서, 남편의 65.4%와 부인의 63.5%가 도시가계 보다 못하다고 평가하였다. 경제기획원(1985)과 김동일(1982)의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농가의 남편과 부인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절대적인 경제적 지위는 높이 평가하는 矛盾을 보인다. 도시 지역 주민들은 직업이 다른 국내 전체 사람들과 경제적 지위를 비교함에 비해, 농촌 주민들이 주로 지역사회내에서 같은 직업을 가진 타농가와 비교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승감, 기대감, 타농가와와 비교해서 오는 긍정적인 효과가 도시가계에서 오는 부정적 영향에 의해 상당 정도 상쇄됨을 알 수 있다. 모든 영역에서 부인이 남편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을 볼 수 있는데, 이는 Fletcher(198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財政的 滿足感(Financial Satisfaction)을 보이는 이유를 상대적으로 경제적 자원과 경제적 기회에 있어 제한을 받고 고정된 경제적 상태를 경험하므로서 상황에 대한 적

응을 함으로 인해 객관적인 상태의 증진없이도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적응이론을 기초로 결과를 파악한다면 도시보다는 농촌이 남편보다는 부인이 현상태에 대한 적응도가 높음으로

인해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교육수준 등 다른 원인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表 6. 相對的 滿足感에 따른 主觀的 福祉水準

변수	구분	S. I. ^h			S. I. ^w		
		평균	%	LSD	평균	%	LSD
5년전과 비교	1) 매우 불만족	2.2	6.6		1.9	5.9	
	2) 약간 불만족	2.9	10.7	1	3.0	10.8	1
	3) 보통	2.6	34.0		2.5	30.0	1
	4) 약간 만족	2.8	40.6	1	2.7	39.4	1
	5) 매우 만족	3.5	8.1	1 3 4 2	3.3	13.8	1 3 4
	F 값		6.49**			8.00**	
5년후와 비교	1) 매우 불만족	3.0	2.5		2.6	3.0	
	2) 약간 불만족	2.8	6.1		3.1	3.4	
	3) 보통	2.7	32.0		2.6	28.1	
	4) 약간 만족	2.5	40.1		2.6	41.9	
	5) 매우 만족	3.1	19.3	4 3	3.0	23.6	4 3
	F 값		3.56**			2.47**	
타농가와 비교	1) 매우 불만족	2.0	6.6		1.7	4.9	
	2) 약간 불만족	2.4	10.7		2.3	19.2	1
	3) 보통	2.7	34.0	1 2	2.7	43.3	1 2
	4) 약간 만족	3.0	40.6	1 2 3	3.0	27.6	1 2 3
	5) 매우 만족	4.0	8.1	1 2 3 4	3.9	4.9	1 2 3 4
	F 값		10.79**			14.90**	
도시가계와 비교	1) 매우 불만족	2.3	29.4		2.1	26.1	
	2) 약간 불만족	2.6	36.0	1	2.7	37.4	1
	3) 보통	3.1	31.0	1 2	3.1	29.6	1 2
	4) 약간 만족	3.3	3.0	1 2	3.4	6.4	1 2
	5) 매우 만족	5.0	0.5	1 2 3 4	4.0	0.5	1
	F 값		13.04**			14.36**	

** : P<0.01, h : 남편의 평가, w : 부인의 평가

2) 相對的 滿足感에 따른 主觀的 福祉水準

表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관적 복지수준은 상대적 만족감에 따라 모두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서 본 연구에서 채택한 주관적 복지지표가 이들 상대적 만족감을 모두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타농가나 도시 가계와의 비교에 따른 만족감이 증가함에 따라 주관적 복지수준이 높은 수준을 나타

表 7. 男便의 福祉水準과 相對的 滿足感 間의 相關關係

	S.I. ^h	5년전	5년후	타농가	도시가계
S.I. ^h	1.00				
5년전	.10	1.00			
5년후	-.01	.44**	1.00		
타농가	.42**	.14	.24*	1.00	
도시가계	.46**	.14	.04	.32**	1.00

表 8. 婦人의 福祉水準과 相對的 滿足感 間의 相關關係

	S.I. ^a	5년전	5년후	타농가	도시가계
S.I. ^a	1.00				
5년전	.08	1.00			
5년후	-.04	.33**	1.00		
타농가	.44**	.05	.14*	1.00	
도시가계	.48**	.13	.06	.30**	1.00

* : P<0.05 ** : P<0.01,
h : 남편의 평가, w : 부인의 평가

났다. 그러나 경제적 상승감과 기대감 수준은 집단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으나 正的인 相關關係는 볼 수 없었다(表 7)

3) 具體的 滿足感에 따른 主觀的 福祉水準

남편과 부인의 주관적 복지수준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되는 구체적인 항목을 설정하여 주관적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要因分析을 통해 어떤 요인이 주관적 복지수준에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보았다. 또한 요인분석을 통해 얻은 점수를 변수로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해서 전반적인 구체적 만족감이 주관적 복지 수준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 지를 알아 보았다.

가) 主觀的 指標와 具體的 滿足感 間의 相關關係

남편의 경제적 복지수준은 자산, 소득, 지출의 거의 대부분 항목과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관관이 낮은 항목은 노임 급료, 송금보조, 조세공과금, 내구재, 정부시책, 부채 유용성에 대한 만족도로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는 앞서 밝힌 항목 외과 피복비, 가계잡비에 대한 만족도의 상관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主觀的 福祉에 影響을 주는 具體的 滿足感 要因의 分析

앞서 상관관계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주관적 복지수준은 대부분의 구체적 만족감을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 만족감 중 어떤 항목이 주관적 복지수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선행작업이 필요하다. 구체적 만족감 항목의 수가 많고, 몇몇 항목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보이므로 요인분석을 통해 동질적인 항목을 몇개의 요인으로 묶었다. 또한 주관적 복지수준에 대한 각 요인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의 회귀 방정식을 이용하였다.

$$Y = b_0 + b_1FS_1 + b_2FS_2 + \dots + b_nFS_n + e$$

Y : 주관적 복지수준, b_0 : 상수, FS_1, \dots, FS_n : 추출된 요인, b_1, \dots, b_n : 회귀계수, e : 오차

남편의 구체적 만족도 점수를 기초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관적 복지수준에 영향을 주는 3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要因 1은 자산, 총소득, 가계비, 농업경영비, 재정관리 능력과 농사일에 대한 만족도로 이루어진 요인으로 총분산의 40.9%를 설명하고, 要因 2는 조세공과금, 저축, 내구재, 정부시책, 편의시설과 가사일에 대한 만족도로 이루어진 요인으로 총분산의 9.1%를 설명하며, 要因 3는 주택과 부채사용의 만족도로 이루어진 요인으로 총분산의 8.1%를 서명했다.

부인의 경우는 4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要因 1은 자산, 총소득, 재정관리능력, 농사일과 가사일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되며 총분산의 41.9%를 설명하였다. 要因 2는 조세공과금, 농업경영비, 저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되었으며, 8.8%를 설명하였다. 要因 3은 주택, 내구재와 정부시책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되어 8.1%를 설명하며, 要因 4는 가계비와 부채 사용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되어 총분산의 7.6%를 설명했다⁴⁾.

남편의 경우는 세 요인이 투입되었으나, 要因 1만이 5% 유의 수준에서 의미있었으며, 설명력이 23%로 나타났다. F값은 33.23으로 0.1%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따라서 남편은 경제적 자원의 소유와 사용 및 관리능력에 대한 만족감을 자신의 경제적 지위라 평가하는 경향을 알 수 있

4) 요인점수를 기초로 남편과 부인의 주관적 복지 수준에 대해 Stepwise 방법을 이용하여 중회귀 분석 및 회귀분석에 대한 가정의 검증을 하였다. 추출된 요인간에는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다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가능성이 낮았다. 오차항의 정규분포(normality) 검증결과, 표준화 점수의 평균이 0, 표준편차가 1에 가깝게 나타나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었으며, Histogram과 Plot을 이용하여 이를 확인한다.

었다.

부인의 경우 要因 1과 要因 3이 1% 유의 수준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要因 1만이 투입된 경우 설명력이 19%로 나타났고 要因 3이 추가된 경우 설명력은 24%로 증가했다. 각각의 F값은 24.89와 17.28로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부인의 만족감 구성항목은 남편과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농업경영비의 주관리자인 남편의 경우에 농업경영비 항목이 포함된 반면, 부인의 경우는 가사일, 주택, 내구재 등에 대한 만족도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을 表 9에서 볼 수 있다.

表 9. 男便의 主觀的 福祉水準에 대한 具體的 滿足 要因의 重回歸 分析

단계	변수	B	SE B	BETA	T	R ²	F값
1단계	요인1	.38	.07	.48	5.7**	.23	33.23**
	(상수)	2.74	.07		41.91**		

요인 1: 자산, 총소득, 가계비, 농업경영비, 재정관리능력과 농사일에 대한 만족도로 이루어진 요인

** : P<0.01

表 10. 婦人의 主觀的 福祉水準에 대한 具體的 滿足 要因의 重回歸 分析

단계	변수	B	SE B	BETA	T	R ²	F값
1단계	요인1	.35	.07	.43	4.99**	.19	24.89**
	(상수)	2.70	.07		38.71**		
2단계	요인1	.35	.07	.43	5.15**		
	요인3	.19	.07	.24	2.84**	.24	17.28**
	(상수)	2.70	.07		39.96**		

요인 1: 자산, 총소득, 재정관리능력, 농사일과 가사일에 대한 만족도

요인 2: 주택, 내구재, 정부시책에 대한 만족도로 이루어진 요인, ** : P<0.01

V. 結果 및 提言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과반수 농가의 남편과 부인이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중위로 평가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경제적

복지수준은 중하위였다.

2. 남편과 부인의 주관적 복지수준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유형을 보여, 경지규모, 순자산, 총소득, 일인당 소득, 가계비에 따라 복지수준에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대외활동이 많은 남편의 경우는 주변 편의 시설이 주된 가계비 관리자인 부인의 경우는 가계비 수준이 주관적 복지수준 평가에 相對的으로 重要하게 나타났다.

3. 전반적으로 남편과 부인 모두 자신이 중위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나, 과거와 비교할 때 경제적 상태가 비슷하거나 나아졌다고 생각하며, 미래에는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타농가에 비해서 약간 나은 상태라고 평가함에 비해, 도시 가계에 비해서는 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인 주관적 만족도에서는 경제적 상승감과 기대감 및 타농가와 비교에서 오는 긍정적인 평가가 도시가계와의 비교에서 오는 부정적인 평가에 의해 상당 정도 상쇄됨을 알 수 있다. 부인이 남편보다 모든 영역에서 肯定的인 評價를 내리는 경향이 있다.

4. 相對的 滿足感에 따라 主觀的 福祉水準은 모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타농가나 도시 가계와의 비교에 따른 만족감이 증가할 수록 주관적 복지수준이 높아졌으나, 과거나 미래와의 비교에 따라서는 正的인 相關關係가 나타나지 않았다.

5. 具體的 滿足感과 主觀的 福祉水準 사이에는 대부분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 주관적 복지 수준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만족감은 3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요인 점수를 가지고 회귀분석을 한 결과 자산, 소득, 가계비, 농업경영비, 재정관리 능력, 농사일 만족도를 포함하는 요인이 의미있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복지수준의 23%를 설명했다. 부인의 경우는 4가지 요인이 추출되었고, 자산, 소득, 재정 관리능력, 농사일과 가사일을 포함하는 요인이 19%를 주택, 내구재, 정부시책에 대한 만족도로 이루어진 요인이 5%를 설명하여 총 24%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提言을 하고자 한다.

1.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평가와의 차이가 있는

므로, 경제적 복지수준 측정을 위해서는 客觀的 主觀的 評價가 並行되어야 한다.

2. 농가의 소득과 자산 외에도 지역사회의 편의 시설이 주관적 복지 수준에 중요하므로, 농가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개별농가의 경제적 자원측적은 물론 地域社會의 開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 農家의 主觀的 福祉 水準은 비교평가를 수반하며, 특히 도시 가계와의 비교에서 오는 부정적 측면의 영향력이 크므로 농가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경기도(1988), 경기도 통계연보
 경제기획원(1989), 한국의 사회지표
 경제기획원(1981), 한국통계연감
 김동일의 2인(1982), 한국 농촌주민의 삶의 질-사회지표 구성을 위한 종합적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동일의 2인(1982), 농촌개발과 사회지표, 한국사회학 16집, 한국 사회학회
 김민정(1984), 가계소득 적정도 인지의 결정요인에 관한 기초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
 김해동(1976), 한국농촌생활지수 연구, 행정논총 14
 노자경(1991), 농가의 경제적 복지수준 및 관련변수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
 농림수산부(1989), 농가 경제조사 결과보고
 농업중앙회(1989), 농협통계연감
 서병숙, 임혜경(1984), 가정생활 주기에 따른 가계 변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학회지
 엄무자(1985), 농촌의 경제적 복지와 소비구조 분석, 한국농업교육 학회지 17권 12호
 임 정(1989), 주부의 가계복지 인지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서울대
 정지용, 최병익(1987), 농촌지역간의 복지수준 측정에 대한 사회생태학적 연구, 한국농업교육 학회지 19권 2호
 최병두(1981), 지역사회 복지와 그 개선 정책에 관한 연구-생활수준과 욕구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최재석(1978), 한국 농촌사회 연구, 일지사
 현오석(1976), 생활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14 : 2
 홍동식(1983), 농촌부락에 있어서 복지수준의 사회구조적 관련요인, 사회조사 연구 제2권 1호, 부산대 사회조사연구소
 Abberly, A., & F. Andrews(1985), "Modeling the Psychological Determinant of Life Quali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16 : 1-34
 Bailey, A. (1987), "Social & Economic Factors Affecting the Financial Well-being of Families." *J. of Home Economics*.
 Fergusson, D., M., Horwood, L., T., & A. L., Beutrais(1981), "The Measurement of Family Material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3
 Fletcher, C. N., & F. O. Lorenze(1985), "Structural Influenc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bjective and Subjective Indicators of Economics of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16 : 333-45
 Fuchs, V.(1986), "Sex Differences in Economic Well-being." *Science* 232.
 Juster, F. T., P. N. Courant, G. K. Dow(1981), "A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Measurement of Well-being.", *Review of Income Wealth*.
 Kammann, R., M. Farry., & P. Herbson(1984), "The Analysis and Measurement of Happiness as Sense of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15 : 91-116.
 Lown(1986), "Family Financial Well-being : Guidance from Research." *J. of Home Economics(winter)*, Vol. 78.
 Magrabi, F. M., Rachal G., Y. S. Jung(1988), *Building a Knowledge Base in Household Consumption*.
 Moon, M.(1977), *The Measurement of Economic Welfare*, New York : Academic Press.
 Power, T.(1980), *The Economic Value of the Quality of Life*, Western press
 Schneider(1975), "The Quality of Life in Large Cities

: Objective and Subjective Social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 495-510.
Titus, Fanslow, Hira(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Honey
Manager’s Competencies,” *A. E. R. J.*, Vol.
17, No 4